

Digital & IT

트위터 열풍

# 재잘재잘 입소문 마케팅에 써볼까

### 140자 미만 단문 휴대폰·메신저·PC통해 공유... 기업 홍보 각광

‘재잘의 재잘거림’(twitter)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란에서 벌어진 ‘재잘거림’으로 인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각 기업들도 이젠 ‘재잘거림’을 중요한 홍보 대상으로 보고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단문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www.twitter.com) 이야기다.

트위터는 인터넷 블로그와 미니홈피, 메신저 등의 장점을 모아 놓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의 한 작은 벤처 트위터가 만들었다. 휴대폰이나 메신저, PC 등을 통해 알파벳 140자 미만의 짧은 글을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문자로도 곧바로 받아볼 수 있다. 블로그의 시스템에 미니홈피에서 사용하는 관계 맺기 기능을 더하고, 거기에 메신저의 신속성을 더했다.

◇김연아·이효리도 개설=세계적으로 트위터 가입자는 1천 600만명을 넘는다. 이미 수 천개의 국내외 기업과 정치인, 연예인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등 기업체는 물론, 김연아·이효리 등 스포츠·연예인, 비영리기관들까지 이들이 이

용한 ‘입소문’ 홍보에 뛰어 들었다. 트위터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계정을 마련한 해외 유명 기업과 기관은 제너럴모터스(GM)·애플·델·아마존·바이닷컴 등 IT부터 금융·소매업까지 업종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적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삼성USA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LG전자도 ‘LG블로그’로 트위터에 합류했다. 최근엔 엔씨소프트와 한국관광공사도 뛰어 들었다.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다양하다. 홍보의 경우 최근 XC60 크로스오버 차량의 출시를 위한 통합미디어전략의 하나로 이용했고, 랜드러버는 올해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자체 생산라인을 트위터를 통해 홍보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인 삼성USA에서도 트위터에 제품 AS를 신청하면 발 빠르게 처리해주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상담창구 기능역할은 물론 영업활동에도 직접 활용하고 있다.

금호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빛의 속도로 발달하는 통신기술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고객과 소통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며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유스퀘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트위터를 이용해 관련 행사들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홍보에도 활용=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조지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가진 강연에서 소통수단으로서 트위터 가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소통담당비서관은 트위터에 가입한 후 소통수단으로 쓸 만하지 검토하고 있다고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도 트위터 이용자 수는 치솟고 있다. 랭킹닷컴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주 5천여명에 불과하던 주간 방문자 수가 3월 1만여명, 4월 2만여명을 웃돌다가 5월 넷째주는 24만명이 방문하는 등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 정보 교환을 원하는 디지털 신세대 사이에서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가 최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트위터가 성공을 거두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기자 kps@kwangju.co.kr



24일 여수시 돌산읍 YS중공업 조선소에서 진수식 후 바지선에 이 끌려 바다로 나온 1만급 다목적 운반선(MPC) H-507호.

## YS 중공업 경영 정상화 전격음

### 1만급 다목적선 진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YS 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YS 중공업은 24일 금융 지원 중단 이후 처음으로 건조 선박을 진수했다. YS 중공업은 이날 여수시 돌산읍 YS중공업 조선소에서 1만급 다목적 운반선(MPC) H-507호 진수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길이 127m·폭 19m로, 최대 16노트의 운항 속도를 자랑한다.

### 전남 투자기업 금융·행정 전방위 지원

전남도는 24일 전국 최초로 금융권, 고용지원기관, 각종 용역지원단체를 망라하는 ‘지방 민·관 공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남지역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행정지원에 대한 합동 상담회를 개최했다.

YS중공업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마무리 작업을 한 뒤 7월 하순 선주사 MPP 1 Limited에 인도할 방침이다.

YS중공업은 또 이날 같은 종류의 다목적 운반선 H-509, H-510호 선박의 탑재를 시작(Keel Laying, 용골 거치)했다.

YS중공업은 이번 진수식을 통해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YS 중공업측은 “조선 경기 침체와 기업회생절차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

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박을 진수하게 됐다”면서 “이번 선박 진수를 계기로 새물결을 도약할 수 있는데 직원 모두가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S중공업은 지난 2004년 신영조선공업을 인수한 뒤 지난 2008년 YS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다목적 운반선·시멘트운반선 등을 주력 생산하는 신조사업과 DWT 5천급 이상의 선박 1천500여척을 수리하는 등 수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미 가입한 펀드라도 판매사 갈아타기 가능

펀드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이, 이미 가입한 펀드에 대해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같은 펀드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펀드 판매수수료 체계도 판매사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원은 24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사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 국세청 26일부터 시행

오는 26일부터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1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실 것입니다. 2. 돈도 절약합니다. 3. 건강도 지키실 것입니다.

# 국제보청기

www.kitv.com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 산행안내

산행 관련 정보와 팁을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K2 동산복·동산화**

특가상품 이월권

※복합권: 경력차 무대

02-814-8811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기타 관련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섹션입니다.